

목포시 '큰 손'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 나섰다

중청여 등 中 최대 여행 기업에 관광설명회·업무협약 체결 무안국제공항 노선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 등 내년부터 추진

목포시가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행 단체관광을 전면 허용하면서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포시는 중국 최대 국영여행그룹인 중국청년여행사(중청여, CYTS)와 한·중 관광 교류 협력의 고교 역할을 하고 있는 북경환발해관광문화발전책임유한공사 등과 해외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 최대 여행 관련 기업과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목포 관광설명회를 개최했다.

업무협약식을 위한 방문단은 중청여를 비롯한 북경환발해관광문화발전책임유한공사, 한국여행업협회(KATA) 소속 여행버스, 베이징시 풍대구 정

부 공무원 등 약 30명으로 구성됐다.

중국 3대 여행사 중 하나인 중청여는 1997년에 설립한 후 중국 여행업을 첫 번째로 성장한 상징적인 국유기업으로 베이징·상하이 등 30개 이상의 핵심 도시에 지점이 있다.

또 중청여 본사가 직접 한국 지자체에 방문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북경환발해관광문화발전책임유한공사는 2008년 설립돼 한·중 등 동아시아 관광 교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는 기관으로 1500여개 여행사가 가입돼 있는 중국 여행사 및 문화관광 서비스 단체다.

이번 협약은 ▲무안국제공항 등의 한·중 항공노선을 이용한 목포 관광상품 개발 협력 ▲목포시 관광기관 중국 현지 홍보 마케팅 추진 협력 ▲중국 국

내 관광객 활성화에 따른 단체 관광객 특선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2024년 상반기부터 관광 교류협력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게 된다.

중국 방문단은 협약식 후 2박3일 동안 목포의 주요 관광 자원을 둘러보고 목포 성장동력인 김산업 육성 기반을 확인하는 등 목포를 종합 시찰했다.

답사 후에는 양 기관이 중국 현지 대체에 맞는 목포 관광자원 홍보와 상품 개발에 적극 협력한다.

강광용 목포시 관광과장은 "해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중국 3대 여행사인 중국청년여행사(중청여)와 관광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기회가 됐다"며 "중청여 및 북경환발해관광문화발전책임유한공사 등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해외의 관광객들이 찾는 큰 목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목포시는 최근 중국 최대 국영여행그룹 중국청년여행사 등과 관광활성화 협약을 맺었다. <목포시 제공>

'연말까지 반값' 완도해양치유센터 체험하세요



완도군 신지면에 최근 문을 연 '완도 해양치유센터'에 들어선 '명상 풀'. <완도군 제공>

기관 기념 이벤트...해수·진흙·해조류 등 16개 치유 요법 시설 갖춰

지난 24일 문을 연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연말까지 반값 행사를 진행한다.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해수욕장 인근에 마련된 해양치유센터 이용료(정상가)는 2만6000원부터 12만5000원까지 다양하다.

1층 기본 이용가는 대인 기준 3만6000원, 소인 2만6000원이다.

1층과 2층의 총 11개의 치료실을 고급 이용가는

대인 12만5000원, 소인 8만원이다.

완도군은 해양치유센터 개관을 기념해 센터를 포함한 해양문화치유·기후치유 등 공공시설에 대해 정상가보다 50% 할인된 요금으로 선보이기로 했다.

해양치유센터 이용 예약은 완도군청 누리집에 있는 '완도 해양치유' (wando.go.kr/healing/index.cs)를 통해서 할 수 있다.

현장에서 입장권을 발급할 수 있지만 2층 치료실은 이용 인원을 제한한 탓에 누리집에서 예약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센터는 수영복을 빌려주고 있다.

해양치유센터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해수, 갯벌, 해조류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해양치유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전체 면적 7740㎡ 규모로 해수, 진흙, 해조류 등 16개 치유 요법 시설을 갖췄다.

/완도=정은호 기자 전담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신안군, 기초 지자체 유일 탄소중립 '우수' 갯벌 복원·태양광발전 사업 육성 정책 등 높은 평가



신안군 관계자들이 지난 27일 '2023 지자체 탄소중립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환경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주관 '2023년 탄소중립 우수사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 환경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심사는 지역 탄소중립 선도 사례 발굴, 확산을 위해 전국의 광역·기초 지자체로부터 응모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 53건의 지자체, 기업, 사·도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우수사례 중 부문별 심사표와 평가 항목에 따라 사업의 적절성, 효과 등을 심사했다.

우수 지자체로 광역 4곳(강원, 부산, 대구, 인천), 기초 1곳(신안), 기업 2곳(한국남동발전영흥발전본부, SK인천석유화학) 등을 선정했다.

신안군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선정,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달성을 향한 군의 노력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군의 주요 정책은 총 3분야로 ▲블루카본(유네스코 갯벌 세계유산 등재, 갯벌 복원 사업, 인공습지 조성, 유용 미생물 보급) ▲그린 카본(암대도 지방 정원 조성, 서남해안 섬 숲 생태복원 등 대규모 숲 조성) ▲신재생에너지(신안 해상풍력 8.2GW, 태양광발전 사업 10GW,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제) 육성·활용책이다.

특히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증대, 지역사회 참여 확대,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무안군승달장학회 장학증서 수여 성적 우수·저소득 등 194명 선발

(재)무안군승달장학회가 하반기 승달장학생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었다.

승달장학회는 최근 이사회를 거쳐 성적우수, 저소득, 예체능, 다문화, 다자녀, 체육꿈나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학생 16명, 고등학생 60명, 대학생 92명, 체육꿈나무 4명 등 총 194명을 선발했다.

승달장학회는 학생과 학부모 등 40여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선발된 학생에게는 중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50만원 내에서 장학금을 차등 지급했다.

특히 장학사업 대상 확대를 위해 이번 하반기 승달장학생 선발부터는 다문화 가정 분야까지 확대해 총 6명의 다문화 분야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내년부터는 주거비 분야 등 수혜대상을 더욱 확대해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사장인 김산 군수는 "장학생들이 무안군민들의 정성으로 모아진 장학금의 의미를 기억하고 되새겨 학업에 정진하여 무안군의 미래를 밝히는 지역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승달장학회는 학업을 이어가시는 우리 지역 학생들의 힘찬 도전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미래를 이끌어갈 든든하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kwangju.co.kr

해남군 온라인 창업 지원 '매출·고용' 쑥쑥

3년간 33개 업체 연간 10명 이상 고용 창출...라이브 판매 인기

해남군이 농식품 개발 온라인 판매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1년부터 추진 중인 농식품 개발 온라인 판매 창업 지원사업은 해남군의 다양한 농수축산물을 상품화해 온라인상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시제품 개발·생산 지원은 물론 민간 클라우드펀딩과 연계해 제품 홍보·판매, 영상 및 상세 페이지 제작 지원으로 온라인 진출까지 지원한다.

매년 11곳씩 지금까지 33곳의 업체가 참여해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함께 연간 10명 이상의 신규 고용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사업에 참여한 A 업체는 기존 무화과 생산에서 한단계 나아가 무화과정 상품화에 성공해 본격적인 가공사업에 착수했다.

또 육가공 B업체의 경우 출시후 홍보부족으로 방치돼 있던 캠핑용 먹거리 꾸러미 상품을 온라인을 통해 재홍보하면서 판매율이 본궤도에 오르기도 했다.

실제 각종 박람회 현장에서 진행된 상품 라이브 커머스는 실시간 접속자가 1000명이 넘는 정도로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기도 했다.

군은 사업이 3년째에 접어들면서 안정되고 좋은 성과로 이어지고 있어 내년에는 사업을 더욱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직접적인 일자리 제공도 중요하지만,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이번 사업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광군, 탄소중립 실천 확대 방안 모색

정책포럼 개최...온난화 대응 등 전문가 논의

영광군이 최근 영광문화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위대한 영광, 군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군이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군민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모든 참석자가 함께한 '환경보호 및 탄소중립 실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기초강연과 주제 강연,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신동원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실장의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에 대한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조승희 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영광군 탄소중립 추

진방향', 김광훈 광주에너지피크 센터장의 '기후변화와 시민 실천방안' 주제강연으로 진행됐다.

이어 김병완 광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정책포럼이 열렸다. 환경전문가 패널들이 참여해 지정토론과 청중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영광군의 탄소중립 정책 방안과 생활 속 실천 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미래세대가 행복한 정정 영광을 위해 모두가 탄소중립에 앞장서야 할 때"라며 "탄소중립이 정책이 그치지 않고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영암 단감 '감풍' 대표과일 최우수상

박문수 젊은농부농원 대표 유기농 생산...영암 특산물 4회연속 수상

영암군에서 생산한 단감 '감풍'이 대한민국 대표과일로 선정됐다.

영암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산림청 주관 '2023년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발대회'에서 박문수 젊은농부농원 대표가 생산한 단감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박 대표는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하고 농산물 품질관리사, 유기농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농업의 전문화를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도전하는 유망 농업인이다.

제조제와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유기농업자재와 유용미생물로 친환경 토양관리를 하며 저탄소 인증도 받아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2.1ha농지에 국내 육성 단감품종을 심어, 연간 50t의 과실을 생산해 소득을 올리고 있다.

영암에서는 2020년 배(장조) 이기열 농가 최우수상, 2021년 단감(부유) 문성문 농가 최우수상, 2022년 단감(부유) 김영재농가 대상 등을 수상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영암특산물이 2020년부터 연속 4년 동안 '대표과일 선발대회'에서 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며 "기후조건과 농업인들의 재배



대한민국 대표과일 최우수상을 수상한 박문수 대표가 단감 '감풍'을 수확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기술이 만나 최고 과일을 생산하고 이를 인정받은 쾌거다"고 밝혔다. /영암=전병헌 기자 jbh@kwangju.co.kr